

한라포커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성과와 과제 (4) 추락하는 제주경제

성장기반 약화 속 추동력 잃고 내리막길

GDP 2018년 마이너스로 전환... 침체국면 지속 1인당 도민소득 팔찌 추락·농가부채는 전국 1위 도, 제주계정 3% 명문화·제주계획 반영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후 1차산업과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1인당 도민소득도 전국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제주지역 1차산업 비중은 지난 2002년 14.1%에서 2019년 8.1%로 떨어졌고, 제조업 비중은 2002년 3.7%에서 2019년 3.6%로 낮아졌다. 1인당 도민소득은 2010년 전국 10위에서 2020년엔 17위(월평균 289만원)를 기록했다. 도내 농가부채는 2014년 5455만원에서 2016년 6396만원, 2018년 7459만원, 2020년 8225만원으로 7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소득 증가율은 전국

에서 가장 낮았다. 특히 제주경제는 2011년 이후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속 성장했으나 2018년에는 2005년 이후 1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1.7%)을 기록한 후 '부진의 늪'에 빠졌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지역 연평균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6.4%로 이 기간 중 전국 GDP성장률(3.1%)을 3.3%p 상회했다. 인구유입 급증에 따른 주거 수요 증가와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개발 사업 추진, 부동산 가격상승이 건설

업 성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2017년 을 기점으로 과열된 건설투자가 조정양상을 보이면서 건설업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의 성장이 위축됐다. 2018년 이후 제주지역 건설경기는 미분양주택 적체, 외국인 투자금액 감소 등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지원 예산도 감소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은 2007년 3.1%(2091억원)에서 2012년 384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엔 1.3%(1205억원)로 줄었다. 균형회계는 지역 균형 발전에 쓸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정부가 도입한 예산이다. 지역의 복지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표인 사회복지예산 규모는 2019년도의 경우 제주도의 전체예산 5조2851억원 중 1조

1326억원으로 전체 21.4%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34.7%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를 인구대비로 나눠 1인당 사회복지예산으로 산정해도 1.69로 세종시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계정 3% 명문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제주계획의 국가계획반영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한 경제전문가는 "최근 부진한 건설업의 경우 환경 인프라 구축과 주거용 건물의 유지 보수 확충 등을 통해 회복을 유도해야 하고 생산성이 낮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 서비스의 경우 공유서비스 활용 등 신산업 기술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2021 제주애 빠지다 ① '샤퀴테리 인 제주' 박인희 대표



브런치 카페 '핫마마'와 육가공 브랜드 '샤퀴테리 인 제주'를 운영하는 박인희 대표. 강희만기자

"샤퀴테리 식문화 제주에 알리고 싶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제주 이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제주 살이를 청산하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서울살이를 접고 제주로 와 남편과 함께 제주산 흑돼지를 활용해 유럽의 전통방식으로 육가공품인 '샤퀴테리'를 만들며 제주 식문화의 변화를 시도하는 이주인이 있어 눈길을 끈다. 미국식 브런치 카페 '핫마마'와 육가공 브랜드인 '샤퀴테리 인 제주'를 운영하고 있는 박인희 대표다. 샤퀴테리는 염장·훈연·건조 등을 통해 만들어진 육가공품을 이르는 말로 프랑스어로 육가공품인 햄과 소시지 등을 의미한다. 박 대표는 2014년 제주에 먼저 이주해 소시지를 활용한 요식업을 하고 있는 남편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주를 찾았다. 푸드트럭 장사를 시작으로 미국식 수제 햄버거 식당 등을 운영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이후 2019년 서귀포시 안덕면 오설록 인근에 미국식 브런치 카페 '핫마마'를 오픈한 뒤 육가공 브랜드인 '샤퀴테리 인 제주'를 설립하고 납품업도 본격화 했다. 사업 초기 미국식 브런치 카페인 핫마마는 인근 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인지도가 높아 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면서 오히려 육가공 브랜드인 샤퀴테리 인 제주를 통해 인터넷으로 소시지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샤퀴테리 납품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핫마마 매출을 넘어설 정도로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박 대표는 "손님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알리고자 마진을 최소화하며 하면서까지 샤퀴테리 가공에 열정을 쏟았고, 최근 노력을 인정 받았는지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지만, 이들이 만드는 샤퀴테리는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제주산 흑돼지를 활용해 샤퀴테리의 본고장인 유럽과 똑같이 소금에 절이는 염장과 연기에 그을리는 스모킹 방식을 이용해 소시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장기보존이 가능하게 처리하고 허브, 향신료 이외의 인공첨가물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들이 만든 샤퀴테리는 전국 특급호텔과 각종 외식업장에 납품되고 있다. 박 대표는 "샤퀴테리 문화를 제주에 정착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화가 정착된다면 도내에서 소홀하게 다루지는 육류의 소비촉진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제주도의 수준있는 식문화를 알릴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부부는 내달 15~17일 열리는 제주 식품박람회(제주잇수다)에 참가해 제주산 흑돼지를 활용해 직접 만든 샤퀴테리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서귀포시 남원·대정읍 4곳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추진

서귀포시가 남원과 대정읍 일원 4곳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에 나선다.

시는 내달 남원과 대정읍 일원 4개 지구의 592필지·55만8000㎡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구는 ▷남원을 남원2차지구(남원리 2368-1번지 일원 314필지, 38만㎡) ▷하례2차지구(하례리 461-7번지 일원 129필지, 9만3000㎡) ▷대정읍 하모리3지구(하모리 838-4번지 일원 89필지, 1만1000㎡) ▷동일리1지구(동일리 2628-2번지 일원 60필지, 7만4000㎡)이다.

시는 각 지구별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현장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얻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구 지정 이후 경계 조정 및 확정,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2022년 12월까지 해당지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조개 캐고 추억도 쌓고 '일석이조' 무더위가 계속된 23일 서귀포시 성산읍 오소리 해변을 찾은 가족단위 체험객들이 조개를 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씩 5500가구 지원 제주시, 25일 지급... 28일엔 농어업인 경영지원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4차 맞춤형 피해자 지원 대책인 한시 생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오는 25, 28일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사업에는 예산

27억2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총 6802가구가 신청한 가운데 소득(중위소득 75% 이하)과 재산(3억5000만 원 이하) 및 소득감소 상황을 확인하여 적합으로 선정된 최종 5577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가구당 50만원으로 오는 25일 지급한다.

단 농어업인 경영지원 대상자로 30만원 지급된 가구는 그 차액인 20만원을 오는 28일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또 적합 가구 중 소득감소에 따른 증빙이 미비한 1806가구·3396명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제주시생 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해당 가구에 대한 지원을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실직 또는 휴·폐업하고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페르카 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 YouTube 검색

▶ Naver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핵심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농가작업인부 지원 (과수원 발작업)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Powerful

용량 : 20kg